독자투고 '우리말 살려쓰기'에 대한 제언

삶속에서 우리나야 할 우리말

이 글은 만살이(언어 생활), 글살이(문자 생활), 말투 등에서 하나의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양을 함으로써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의 험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모양을 하게 된 것은 첫째,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둘째,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몇 번을 보다 보면 처음 생각처럼 어색하지는 않음을 보여 드리기 위함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말에서 만큼은 '용불용설'이 철저히 진리입니다.

무엇에 맞서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글·한자 맞섬을 따지는 데 있어 문제의 중심은 단순히 한자를 써야 되느냐 한글만 써야 하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한글만 쓰기'나 '한자 섞어쓰기'냐가 아니라 우리 말을 살려 쓰느냐 한자말을 쓰느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전에 올라있는 한자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얼마나 한자말을 많이 쓰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말이 있거나 쉬운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입말에서는 알고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우리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말을 살려쓰면 한자 섞어쓰기(한자 혼용)가 아닌 '한글만 쓰기' 혹은 '우리 말 살려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말입니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당장 우리말로 고쳐쓰기 어려운 한자말중에서 우리가 입말에서도 흔히 쓰는 쉬운 말은 우리 말로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둘째, 쉬운 글살이를 위해서라도 입말을 살려 써야 합니다. 세째, 같은 소리 다른뜻 글자(동음이의어)가 있어 뜻이 헷갈릴 수 있는 말이라도 당장 한글로 고쳐쓰기 어렵고 그 뜻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십계로 자주 쓰인다면 한글로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한글로 고쳐 쓰기 어려운' 경우라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 현실생활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데로 줄이기 위해서이므로 쉬운 우리말로 고쳐쓸 수 있는 말은 모두 우리말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쉬운 우리입말 살리면 한자어 극복 가능
어려운 말로 권위 세우려는 습관 버려야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자는 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선 모든 한자말은 우리말이 아니라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껏 한자를 빌어 써 왔던 탓으로 우리말만으로 거뜬히 말·글살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쩔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만 조금 더 빌어 쓴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바로서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없으면 혼돌리게 됩니다. 우리 말·글살이에서 원칙은 바로 '우리말 살려 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살려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글에 말이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글은 몇몇 유식한 사람들이 한껏 걸멋을 부리면서 썼던 때로부터 종살이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역사와 삶으로 인해 어렵게 쓰고 다른나라 말투로 쓰며 화려하게 장식을 하려는 나쁜 버릇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이 시나 소설을 쓰고 그것마저도 온갖 어려운 한자말과 낯설은 외국말, 그리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그런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들만의 글재주(기교)라는 것이, 아무나 시와 소설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말은 글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바로 우리의 피와 살입니다. 한민족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 우리 원분(선조)들께서 살아 온 삶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의 역사는 일하는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손을 놀리지 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벼나무'도 생기는 것이고 넓은 들을 보기 힘든 이땅에 '류른 초원 위에 양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껍데기만의 삶을 살아 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서도 껍데기만을 키워왔고 우리의 삶 그 자체인 알맹이는 짓밟히고 목 졸려 왔습니다. 우리 말을 써야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것을 아깐다던지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역사가 겪나는 날가지 한자를 쓰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겨레가 글살이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한자를 써 왔고 어느 및 한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일부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전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나 금방 지어낸 한자말은 사전이 고쳐지기가 무섭게 실으면서도 풀어 쓴 우리말이나 우리말로 지어낸 말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쳐보면 사전에 올라있는 한자말의 개수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뭐니뭐니 해도 진짜 문제는 우리의 버릇이지요. 쉽게 해야 알아 듣을 말을 뻔히 이렇게 한다던지, 결멋을 내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 내는 것 등입니다. 논문 등 모양을 갖춘 글을 쓸 때에도 한자나 어려운 한자말을 써야 모양을 갖춘 것 같고 유식해 보이며 무게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또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얘기할 때에는 가장 쉬운 말로 하다가도 남 앞에만 서면 어려운 말을 쓰는 버릇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는 말의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의 알맹이가 얼마나 알찬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가장 쉬운 말로써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로써 살아가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혹 한자말을 쓰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렸더라도 앞으로의 쉬운 말·글살이를 위해서 우리말을 쓰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 영 기
〈섬유공·3〉

경희LAN이야기⑧

LAN 이용한 파일 송수신법

파일 전송이란 하나의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서 테이프나 디스켓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software명령으로 직접 파일을 송수신할 수가 있다.

모뎀을 이용하는 이야기에서 파일 보낸(upload), 파일 받기(download)를 하려면 이야기의 서류철 메뉴에서 파일 보냄, 파일 받기 메뉴를 선택하면가 각각 〈PageUp〉, 〈PageDown〉키를 누른 후에, 프로토콜을 선택하면 된다. 프로토콜을 선택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언어로 대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일대일로 통신을 한다면 모뎀으로 접속하기 전에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가를 약속하고, BBS에 접속한 경우라면 이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프로토콜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곳에서 선택한 프로토콜을 선택해주면 된다.

모뎀에서의 파일 전송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 LAN에서의 파일 전송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경희대학교LAN에 연결된 PC사용자에게는 다음의 3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PC와 호스트간 -호스트와 호스트간 -PC와 PC간

PC와 호스트간의 경우 경희대학교 LAN에서 파일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명령어는 ft이다. PC상에서 ft라고 치면 간단한 사용법이 화면에 나온다. ft의 경우에도 tn이나 htn처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자신의 id가 없는 사람은 id에 anonymous, password에 자신의 e-mail주소를 입력하면 login할 수 있다. login후 ftp란 프롬프트가 나온 후에 전송할 파일의 타입에 따라 ASCII타입인지 BINARY타입인지 결정한 후 파일을 보낼 때는 put, 받을 때는 get명령을 쓰면 된다.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이 어느 타입인지 모를 경우에는 BINARY타입으로 설정하면 ASCII타입의 파일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이외의 호스트에서 파일을 전송받으려면 위의 세가지 경우 중 호스트와 호스트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tn이나 htn 명령으로 우선 경희LAN에 login한 후 ft대신 ftp명령을 사용하여 호스트에 login하면 된다.

〈경영시스템연구회 UNIX팀〉

建時鐘

수원 학생회 간부의 '욕설'

취임 9개월을 눈앞에 둔 황산성 환경처 장관이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나면 다음날 신문에는 황장관이 기자들에게 쏟은 폭언이 보기에도 딱한 화난 표정의 사진과 함께 동정란의 머릿 기사를 채우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은 가십의 범위를 벗어나 사설을 통해 황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8일 수원 총학생회 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러 간 우리 기자가 지난주(11월 15일자) 사설과 관련, 수원캠퍼스 인복위원장에게 '봉변'을 당한 모양이다. 당당기자에 따르면 인복위원장은 "사설 쓴 ×× 누구야?" "너 이 ×××× 죽어!"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교섭위의 한 학생은 (대학주보)의 논조 전반과 관련하여 '총고'를 아끼지 않았다 한다. 그의 논리가 또한 걸작이다. "(대학주보)는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언론매체이다.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다. 총학에 대한 비판은 학생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려는 우리 기자들의 노력의 표현이지 학생들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다. 총학이 걸핏하면 '열린 학생회'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표방하면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도 없는'현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

(대학주보)는 분명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언론매체이다.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다. 총학에 대한 비판은 학생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려는 우리 기자들의 노력의 표현이지 학생들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다. 총학이 걸핏하면 '열린 학생회'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표방하면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도 없는'현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

(대학주보)는 분명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언론매체이다.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다. 총학에 대한 비판은 학생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려는 우리 기자들의 노력의 표현이지 학생들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다. 총학이 걸핏하면 '열린 학생회'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표방하면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학생 기자가 만드는 〈대학주보〉는 학생들만의 신문은 아니다. (대학주보)는 경희대학교의 공식매체로서 경희대의 3주체인 교수, 교직원, 학생의 신문이다. (대학주보)가 총학의 기관지가 될 수 없음은 스스로 명백한 사실이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 있듯이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와 총학을 비판하는 학내 언론 기관은 존재해야 하며, 그 언론 기관은 또한 학생들의 감시 속에서 더욱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그것은 언론도 오류를 범한다는 엄연한 사실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대학주보)의 기사에 관한 학생들의 반박투고를 (대학주보)는 배제하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와 상치된다고 해서 취재기자에게 욕설을 한 인복위원장이나 1만 학우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대학주보)가 총학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교섭위 한 학생의 생각이 총학 전체의 입장이 아닐 믿는다. 그러나 어느 일간지가 황산성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를 똑같이 내세우고 싶다. 인복위원장의 욕설 때문에 그의 퇴임을 촉구하지는 않는다. 그가 인복위라는 기구의 위원장을 맡으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걱정할 뿐이다.

〈김중석 記者〉

학술단신

경제(연) 초청강연회

경희 경제연구소와 정경대 경제학과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농업'이란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무원장 최양부씨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연다.

강연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집도 마련되는데 이것은 UR의 개념과 UR시한을 맞고 있는 지금 EC와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등의 국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국문과 학예술제

국문학과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예술제를 개최한다.

학부생, 대학원생, 동문, 교수가 함께 하는 이날 행사는 오전에는 '어문학 발표회', 오후에는 '민족문학의 밤' 행사로 짜여져 있다.

'민족문학의 밤' 행사는 교수의 예능시 낭송, 국문인의 삶을 그린 사극, 1, 2학년의 장기자랑, 각 학회 발표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화학과 학술제 개최

자연과학대학 화학과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자대 4층에서 제1회 학술제를 개최한다.

학문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 학술제의 일별 일정을 살펴보면, ∧29일(1시 30분~5시30분) : 동문 선배와 간담회, '컴퓨터 그래픽', '호프만 교수에게 듣는 화학과 현대생활' 주제로 비디오 상영, 실험실 기자재설명 △30일(1시30분~5시30분) : 재학생 졸업논문 발표, '화학이란?' 주제의 비디오 상영 등이다.

전자과 학술 강연회

전자공학과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재철 박사를 초빙해 '광섬유 센서'를 주제로 오는 24일 1시30분 공대 세미나실에서 학술 강연회를 갖는다.

동연학술분과 문화제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 소속 '학술분과'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외대 한누리소극장에서 '학술 문화제'를 갖는다.

지난 1학기의 학술제에 문화제의 성격을 가미시킨 이번 행사는 우리말 연구 동아리 '우리말메아리'의 '남·북한 말과 글' 발표제, 농촌 연구회 '흙사랑'의 농업관련자료 전시회, 로켓 연구 동아리 'TUSI'의 로케트의 역사와 관련 사진 전시회, 공해문제연구 동아리 '한누리'의 '핵투기 반대'를 주제로 한 촌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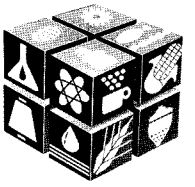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책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지만
젊은이란 그릇을 다 채우기엔
책만으론 오히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없이 높고 큼으로 겸손의 미덕을
일러주고, 험준함과 불굴의 위용으로
강인한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이땅의 산은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산과 같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삼양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크기운 격려를 보냅니다.



삼 양

●주식회사 삼양사 기획, 식품, 사료, 화섬, 화장품 ●삼양통기주식회사 ●동도모직주식회사 ●동남섬유화학주식회사 ●삼양제노주식회사 ●신한보증보험사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원에너지 ●대한개발리조트 ●삼양그룹연구소 ●삼양 종합기술연구소 ●삼양그룹인재연구소 ●삼양호 ●동남병원